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생사업 무너지니 천당이 무너져

법 신 ⑥

이 소식처에서 삼악도가 뒤집히니 지옥이 와지끈 부서지고 생사업이 무너지니

그러니까 벌써 이 자리에 가면 죽었다 살았다 이거 헛거라는 말 알았거든. 그러니까 생사업이 무너졌어.

생사업이 무너지니 천당이 우지끈 넘어지는 풍광이다.

지옥이 와지끈 무너지니 천당이 우지끈 무너져. 참 좋죠? 천당과 지옥을 내 마음대로 쓸 줄 알아야 되지 남이 만들어 놓은 천당에 가서 거지짓 할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서 부질없이 꿈틀거리느냐. 이리 할까 저리 할까 망설이다가 혹일하에 날뛰는 백귀에게 사로잡히면 헤어나지 못하니 쫓기는 길은 바로 불구덩이가 아니면 흙구덩이니라.

그러니까 이 도리를 모르면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결단을 하라. 분별에 있지 않다. 여래 땅에 이르는 길은 집(재가)에 있고 집을 뛰쳐남(출가)에 있지 않으니 그 법도에 차별이 없는 까닭이요 앎과 모름에 있지 않으니 그 지견에 차별이 없는 까닭이요, 늙음과 젊음에 있지 않으니 그 상모에 차별이 없는 까닭이요, 남자와 여자에 있지 않으니 그 성별에 차별이 없는 까닭이요, 미함과 깨침에 있지 않으니 그 지혜에 차별이 없는 까닭이요,
바름과 삿됨에 있지 않으니 그 도리에 차별이 없는 까닭이요, 착함과 악함에 있지 않으니 그 행위에 차별이 없는 까닭으로서 오로지 쫓아서 온 바도 없고 또한 가는 바도 없느니라 호의 젯트기에 있을 따름이다. 이 당처인지라, 가지 가지마다가 거문고 줄이요 잎 잎마다가 피리 소리더니 어즈버야, 이 천억 화신인 석가모니불의 가풍이로다.

사실로 우리가 이만 하면 됐지 이 이상 더 바랄 거 뭐 있습니까? 이 이상 또 바래요? 이 이상 더 바라면은 욕심이 너무 많아. 바랄 것도 없고. 그러하니 다만 우리는 뭐냐 할 것 같으면 공연히 자기 부처를 자기 스스로가 구속하고 있을 따름이여. 왜 구속을 해요? 왜 경계에 닿질려서 놀아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는 무엇이냐. 파순이가 사도예요. 경계를 좋아해. 경계를 그리 좋아해. 변하는 경계. 그래서 거기 놀아나. 그것이 파순이거든요. 보살은 무엇이냐. 경계를 그대로 굴리더라도 거기에 들어앉질 안 해. 이것이 보살이에요. 이것이 부처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계를 그대로 굴려. 꽃도 굴려 자식도 굴려. 가정도 굴려. 굴리고 굴릴지언정 전부 그거 꼭두놀이거든요. 그러하니 꼭두놀이가 하나의 묘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묘용인 줄 알고 그대로 잘 굴릴지언정 거기에 쏙 빠져서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돼요. 이러한 대목이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불법은 어렵다 이것인데, 어려우나 쉬우나 간에 어떻든지 그대로 안 할 수도 없다 말이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서. 오늘도 안 되겠습니다. 하니까 이건 오늘 끝냅시다. 전부 일일이 이유를 다 들었잖아요. 이러한 까닭이다 저러한 까닭이다. 마침 이렇게 다 해 놨거든요. 하나라도 틀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금시 말한 것.

이 소식에서 법중대왕이 나오신다.

여러분들이 이 소식에 실감이 나.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뚱이 이대로서 여러분이 법중대왕이 되는 겁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천당 지옥 무너지니 고국산천에 월일색이로다.

천당 지옥이 턱 무너졌어. 무너져놓으니 되돌아서 고국산천에 월일색이다. 달이 환한데 이거는 내 달이다 이거는 니 달이다 이거는 어떻고 어떻고 거기 무슨 분별이 있습디까? 하나의 그림이나 한가지라. 월일색이라. 하나의 그림이나 한가지다 그 말입니다.

서른둘의 위의라서 깨끗하온 행인것을 뉘라알리 여래땅에 바로드는 소식임을 만약오늘 저언덕에 다다르지 못한다면 어느때를 다시맞아 사람몸을 지으려노

실로 우리는 이 몸 받은 것이, 우리가 현재 사람의 몸 받았으니 후세에도 사람의 몸 받는다. 물론 받을 수도 있죠. 하늘에 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니 어떻든지 여러분들, 이 사람의 몸 받은 이 기회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정신 안 차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같은 도반으로서 서로 얘기하는 건데 참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를 들으면 어떻든지 집에 돌아가시거든 그만 파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 경계에서 놀아나는
> 파순이가 사도
> 보살은 경계를
> 그대로 굴리거나
> 거기에 들어앉지 않는다
>
> 천당 지옥 무너지니
> 고국산천에 월일색이로다
> 어떤 분별도 생기지 않고
> 하나의 그림이 한가지다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진실한 행동으로 나무아미타불 달성해야

⑨-2항순중생

'늘상 보현(普賢)의 광대(廣大)한 수행을 닦아 둥글게 가득찬 무상(無上)의 보리심(菩提心」)으로 끝내는 부처를 이룩하리라'

수순은 남의 마음을 맞추어 나간다는 것, 또 앞에서 말한 중도실상(中道實相)의 도리에 순합하는 그것이라고 알았지만 여기서 주의를 환기할 일이 하나있다. 가령 구한말(舊韓末)의 역적배들, 이를테면 이완용 송병준 하는 따위 인물들이 있어 사안(史眼)으로 평한다면 그들은 한 국가의 중신(重臣)으로,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맡은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누구의 마음을 맞추어 좋게 했던가? 일본사람의 마음을 한 없이 좋게 해주었다. 아마 일본 사람에게는 거스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반역하고 한 없이 슬프게 만들었지만, 그렇다면 이 역적배들은 일본 사람한테는 수순을 했다. 이것이 수순이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들을 반역자로 규탄한다. 이를테면 중도의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중도의 도리란 커다란 의리, 대의(大義)이기 때문이다. 이 대의에 맞지 않는 일을 그들은 저질렀기 때문이다.

원효대사는 수순을 퍽이나 중대시하여 그 목적은 결국 중도(中道)의 실상(實相)이라고 하는 대사회 건설의 원리에 맞아야 된다고 하였다. 그것을 우리는 입명단(立命段)이라고 한다. 최후의 입명, 목숨을 어디에다 바칠 것인가 하는 얘기다. 목숨은 어디에다 바치고, 어디에다 세워져야 하는가?

'바라건데 항상 내 죽을 때를 위해 모든 장애를 말끔히 씻어 내리라'

임명종시라고 그냥 해 버린다면 그것은 간단하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여, 늙고, 병들어 자연 생활을 끝마칠 때라는 뜻이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목숨이란 게 한낱 들숨 날숨에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숨이 끊어지는 때가 따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70이나 80에 가서 그때야 죽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설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장담할 수 없을 바에야 우리는 평소에 이런 각오를 해두어야 한다. 즉 목숨은 늘 왔다 갔다 한다고. 이럴 때 어디에다 바쳐야 한다고. 그 어디에라는 것이 우리는 중도의 도리, 대의(大義)라는 것이라고. 그 때에는 일체의 얽매이고 거리끼는 일들을 말끔히 씻어야 된다. 완전 소탕해 버리고 깨끗해져야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기서는 우리가 대의를 앞에 두고 큰 용단(勇斷)이 있어야겠다. 크게 뼈대가 있고 마디가 억센 것이고 절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충신이 선죽교(善竹橋)에서 피를 흘렸다. 포은(圃隱) 선생은 충절(忠節)을 가지셨다. 계례의 장래에 커다란 포부를 가졌던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 충무공(忠武公)이 진충보국(盡忠報國)했다. 그의 충성스런 의절(儀節). 그의 죽음. 이를테면 이런 것이 원아임욕명종시(願我臨欲命終時). 언제든지 자기 목숨이 끊어질 때를 각오한다. 그렇게 행동했다. 포은 선생의 최후에서는 그것이 역력히 보인다. 우리도 늘 일상생활에 그렇게 있는 것이다. 누가 날 받아놓고 죽는 사람은 없다. 법화경(法華經)에 이르듯 우리는 상재영축산(常在靈鷲山)이다. 전쟁하는 사람처럼 항시 전투가 벌어지는 싸움터에 있다. 이 생각을, 대의를 한시도 떠나서는 안 된다. 자기의 의무가 무엇이냐? 의무감, 사명감(使命感)에 눈 떠 있어야 한다. 이런 때, 자기를 붙들어 매는 온갖 장애물을 용단으로써 탁 끊어 팽개치고 깨끗이 잊어버린다. 일대 결심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저기 아미타불을 우러러 보고
곧 안태한 극락의 지경으로 들어간다.
바로 이 대 목적(大目的)밖에 아무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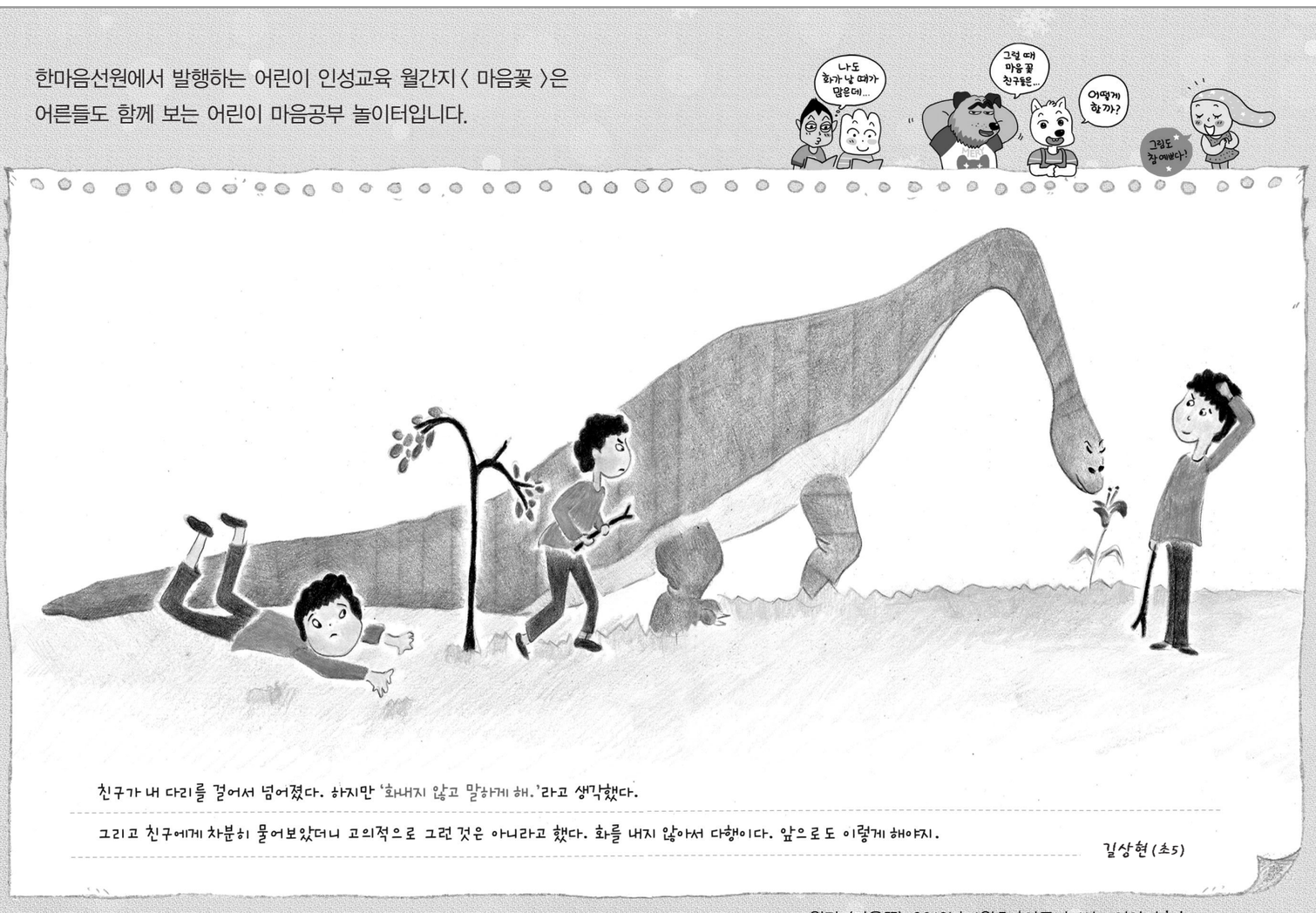
그런데 흔히 절간에서 보는 일인데 불제자(佛弟子)란 사람들이 수순중생(隨順衆生)한다는 뜻이겠지만 남의 마음 맞추느라고 이상스럽게 속화(俗化)하여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헌챙이 만챙이에 다 곤챙이가 되어 무골충 노릇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퍽이나 딱한 형상이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거룩할 리가 없지 않은가? 수순을 잘못 생각하여 중생과 더불어 속화하고, 그들의 부패에 영합하는 것은 장한 일이라 할 수 있을까? 구한말의 역적배들을 아무리 시대가 발달하였다 한들 우리가 어떻게 의사(義士)라고 부를 수 있으며 또 여러 남자를 거쳐 온 바람둥이의 창녀(娼女)들,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에선들 정절(貞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인간의 대의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같은 것이며 설혹 일시적인 사조가 윤리의 도착을 빚어내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역설(逆說)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러한 역설이 성행하는 것은 사회와 시대가 병들었다는 것을 얘기할 따름인 것이다. 인간의 역사적인 행동은 반드시 자타의 비판을 받게 되며, 이렇듯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서 우리는 이를 사회성(社會性)을 띤다는 말로 일컫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입명단(立命段)에 있다. 입명단은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들의 진실한 행동, 그러니까 일편단심(一片丹心)이라 할 수 있다. 일편담심이란 순일무잡(純一無雜)한 것이다. 순전히 하나인 것이고 여기 잡된 것이 섞이어서는 안 된다. 잡년이라든지 또는 잡놈이라든지 하는 잡(雜)이 섞이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원동력이라야 우리의 공동 목표인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을 달성 할 수 있다.

> **목숨은 한낱 들숨 날숨에**
>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 **목숨이 끊어지는 때가**
> **따로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 **"죽을 때 위해 모든 장애를**
> **말끔히 씻어 내리라"**
> **아미타불을 우러러 보고**
> **곧 안태한 극락의 지경에**
> **대목적(大目的)만이 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인성교육 월간지 〈 마음꽃 〉은
어른들도 함께 보는 어린이 마음공부 놀이터입니다.



월간 〈마음꽃〉 2013년 4월호 '아무나 쓰는 이야기' 中

마음꽃 피어라, 웃음꽃

"가기 싫은 학원을 즐겁게 갈 수는 없을까?"
"보기 싫은 친구를 사랑할 수는 없을까?"

나와 같은 고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음꽃〉에서 만나보세요.

* 사찰이나 학교 · 도서관에 기증되는 마음꽃은 구독료를 받지 않습니다. *

정기구독 안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31)470-3180 / 010-5650-3180

정기 구독료 :
30,000원 (1년 / 12권)

입금 계좌 :
농협 356-0822-8773-23
(예금주 : 권나래)